GS칼텍스는 28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과 챔피언 결정 2차전에서 세트스코어 3-0 승리를 거두고 우승까지 1승만을 남겨놓았다. GS칼텍스 차상현 감독(오른쪽)과 이용희 코치가 선수들의 플레이에 만족한 듯 활짝 웃고 있다.
장충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챔피언결정전 2차전도 완승…GS칼텍스 삼각편대의 힘' 1면에서 이어집니다

1세트를 시작하자마자 GS칼텍스는 강한 서브로 주도권을 낚아챘다. 안혜진~강소휘의 강력한 서브로 흥국생명의 리시브를 흔들었다. 리시브 효율이 19%에 그친 흥국생명은 부정확한 연결과 서브범실에 발목을 잡혔다. 상대의 날개공격을 세트 중반까지 막지 못했던 흥국생명은 김연경~이주아의 연속 블로킹으로 계기를 잡았다. 수비까지 살아나자 경기는 뜨거워졌다.

흥국생명이 브루나의 연속득점으로 18-19까지 추격하자, GS칼텍스는 러츠의 2연속 공격과 문명화의 블로킹을 발판 삼아 다시 달아났다. 흥국생명은 1차전과 달리 수비가 점점 견고해지면서 21-23까지 추격했지만 브루나의 공격범실이 나오는 바람에 기세가 꺾였다.

2세트도 양상은 변하지 않았다. GS칼텍스는 날개공격수 3명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며 득점했다. 강소휘가 7득점으로 세트 최다득점을 올렸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4득점으로 고군분투했지만 브루나는 마이너스, 김미연은 0%의 공격효율을 기록했다. 그나마 이주아가 블로킹과 속공으로 거들어준 덕분에 경기가 일방적 분위기로 흐르진 않았다. 그러나 10-14에서 흥국생명 김미연의 2단 공격과 브루나의 오픈공격이 각각 범실과 블로킹에 막히면서 주도권은 완전히 GS칼텍스로 넘어갔다.

3세트 7-6에서 GS칼텍스는 강소휘의 공격과 블로킹, 한수지의 서브에이스 등으로 연속 4득점하며 또 앞서나갔다. 흥국생명도 열심히 추격했지만 GS칼텍스는 거침없었다. 3세트에서만 7점을 따낸 이소영이 88%의 공격성공률을 기록하자 모든 것이 편안해졌다. 1차전과 마찬가지로 차상현 감독이 박수만 치고 있어도 기세가 오른 GS칼텍스 선수들이 알아서 해결했다. 흥국생명은 체력마저 떨어진 탓에 제대로 반격조차 못 해보고 3세트를 내줬다. 이주아가 4개의 블로킹을 포함해 9득점으로 공격의 균형을 맞춘 것이 위안이었다.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동행복권

2021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
2,084명 신규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총 2,084명(예비후보자 798명)
- 모집대상 : 1)우선계약대상자, 2)차상위계층
  1) 우선계약대상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 모집지역 : 전국 225개 시군구 지역
- 지역별 모집인원 : 모집 공고문 [별지] 확인
- 신청방법 : (주)동행복권 홈페이지(www.dhlottery.co.kr) 내 인터넷 신청
- 신청기간 : '21년 4월 16일 10시부터 인터넷 신청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주)동행복권 고객센터(1588-6450)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Lotto 6/45 956 회 당첨번호 (추첨일 : 2021 년 03월 27일)

| 1등 당첨번호 | | | | | | 2등 보너스 번호 |
|---|---|---|---|---|---|---|
| 10 | 11 | 20 | 21 | 25 | 41 | 40 |

1등 총 당첨금 22,252,809,381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게임 기준이며, 당첨 게임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0% 이상입니다.

| 등위 및 당첨게임 수 | | | 당첨금(원) | 당첨금 내역 |
|---|---|---|---|---|
| 1등 | 6개 숫자일치 | 11 | 2,022,982,671 원 |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
| 2등 | 5개 숫자일치 + 2등 보너스일치 | 136 | 27,270,600 원 |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
| 3등 | 5개 숫자일치 | 3,053 | 1,214,806 원 |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
| 4등 | 4개 숫자일치 | 144,650 | 50,000 원 | 50,000원 |
| 5등 | 3개 숫자일치 | 2,325,943 | 5,000 원 | 5,000원 |

*상기 당첨금은 1게임당 당첨금액 기준입니다. (세금 공제 전)

· 동행복권 콜센터 : 지역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dhlottery.co.kr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 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시 유의사항
·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은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지나친 복권 구매는 중독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행클린센터 080-800-0501 www.clean.dhlottery.co.kr

예견된 '요코하마 참사' 후 정몽규 협회장까지 사죄했지만…

# 불통·무기력·무전략….벤투는 '모르쇠'

**컨디션 엉망인 홍철 풀타임 강행**
**경기 안 뛴 J리거 전부 차출 의문**
**이강인 낯선 제로톱·플랜B도 無**
**격리 끝나는 4월2일 새 비전 내놔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 치러진 통산 80번째 한·일전은 끔찍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은 25일 요코하마에서 벌어진 일본과 친선경기에서 0-3으로 완패했다. 10년 전의 '삿포로 참사'를 소환한 졸전이었다. 전반 2골을 허용한 조현우(울산 현대) 대신 투입된 골키퍼 김승규(가시와 레이솔)의 선방 쇼가 아니었다면, 또 상대 2진 공격진의 2% 부족한 마무리가 아니었다면 5골차 이상까지 날 법한 역대 최악의 경기였다.

여론이 들끓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6일 선수단 귀국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사죄 메시지를 띄우기에 이르렀다. 정 회장은 "벤투 감독에게만 비난이 쏠리는 건 온당치 않다. 완벽히 지원하지 못한 협회의 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다.

파울루 벤투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이 25일 원정 한·일전에서 드러난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인해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벤투 감독.
인천국제공항 | 뉴시스

틀린 얘기는 아니다. 다만 방향이 잘못됐다. 협회는 벤투 감독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다. 정 회장의 메시지에 등장한 '구단과 지도자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협회가 아니라 대표팀 코칭스태프의 역할이다.

그들은 반사적으로 K리그 현장을 돌아다녔다. 포르투갈 코치들도, 국내 코치들도 K리그와 소통하지 않았다. 협회 전무이사를 지낸 홍명보 울산 감독이 "정상적 상태가 아니다. 자신감도 떨어졌고, 경기력도 안 좋다"던 왼쪽 풀백 홍철을 굳이 뽑았고, 보란 듯 풀타임을 뛰게 한 벤투 감독을 보며 축구인들은 당혹스러웠다.

게다가 벤투 감독은 울산에서만 총 7명을 뽑았다. 엄청난 정성을 쏟아도 부족할 한·일전을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로 삼으려 한 게 아니라면 설명할 길이 없다. 뚝심이 지나치면 고집, 나아가 아집이 된다.

물론 6월 국내에서 치러질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잔여 4경기를 앞둔 마지막 소집이자 점검 기회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벤투호'는 항상 뽑는 선수들만 다시 택했다. 그나마 홍철과 포지션이 같은 박주호(수원FC)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 역시 컨디션이 홍철 못지않게 좋지 않았다.

팀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최근 경기를 뛰지 않은 일본 J리그 감바 오사카 소속선수들을 전부 차출한 것도 의문이다. 베테랑 수비수 김영권은 기대이하였고, 주세종은 코로나19 재확진으로 합류할 수 없었다. 차라리 벤투 감독이 "가장 경기력이 좋은 선수를 뽑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나을 뻔했다.

전술적으로도 실패했다. 먼 길을 날아와 지친 이강인(발렌시아)을 낯선 위치(제로톱)에 세웠고, 플랜B도 내놓지 못했다. 평소처럼 보수적 선발을 했다면 선수들에 가장 익숙한 전략을 세웠어야 했는데, 벤투 감독은 생뚱맞은 파격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삶은 계속된다. 협회와 대표팀이 원정 A매치에 나선 것은 그들의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난맥상과 문제점들을 되짚지 않으면 고통은 계속될 뿐이다. 귀국한 선수들은 방역 지침에 따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다. 4월 2일 암울한 시간이 끝나는 대로 벤투 감독이 직접 해명하는 자리가 필요해 보인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 5타차 1위…박인비, 21승 보인다

〈통산 21승〉

**LPGA KIA 클래식 3R 합계 12언더**
**"대회 내내 느낌 좋다" 첫 승 자신감**

1, 2라운드 모두 1타 차 선두였다. 3라운드에선 5타 차로 간격을 더 벌렸다.

2021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 처음 나선 '골프여제' 박인비(33)가 통산 21승을 눈앞에 뒀다. 2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즈배드 아비아라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KIA 클래식(총상금 180만 달러·20억3000만 원)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언더파 69타를 쳤다. 합계 12언더파 204타를 기록해 7언더파 공동 2위 그룹을 형성한 허미정(32)과 이민지(호주), 멜 리드(잉글랜드) 세 명을 5타 차로 따돌렸다. 이 대회에서 우승없이 세 차례 준우승만 거뒀던 박인비는 아쉬움을 털어내고 지난해 2월 호주여자오픈 이후 1년 1개월 만에 통산 21승을 장식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5번(파5), 7번(파4) 홀 버디로 전반에 2타를 줄인 박인비는 11번(파3) 홀에서 보기를 범하며 2위와 3타 차로 격차가 좁혀졌지만 13번(파4) 홀과 17번(파5) 홀에서 다시 1타씩을 줄이며 여유있게 경기를 마쳤다.

"사흘 내내 느낌이 좋았다"는 박인비는 "9번 아이언으로 친 두 번째 샷이 홀 3.5m 정도 거리에 놓였다. 그 버디 퍼트가 들어가면서 이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다"고 13번 홀 상황을 떠올렸다.

박세리(44·은퇴)가 보유한 한국인 LPGA 투어 최다승 기록(25승)에 다가서고 있는 박인비는 "어릴 때부터 박세리 선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박세리 선배의 기록을 따라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도쿄올림픽을 앞둔 각오를 묻자 "올림픽은 항상 좋은 동기 부여가 된다. 올림픽이 없었다면 아마 내가 오늘 여기 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2연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덧붙였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26)이 합계 6언더파 공동 5위에 랭크된 가운데 1년 4개월 만에 LPGA 투어 복귀전에 나선 김효주(26)는 5언더파 공동 8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골프 여제' 박인비가 올해 처음 나선 LPGA 투어 KIA 클래식 3라운드에서 5타 차 선두를 달리며 통산 21승에 바짝 다가섰다.
뉴시스

# 베이징올림픽 출전권 4장!…한국피겨, 세계선수권 수확

**차준환 톱10…2명 남자선수 출전**
**이해인·김예림, 여자선수 2장 기여**

대한민국 피겨스케이팅이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권 4장을 확보했다.

한국은 27일(한국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막을 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2021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녀 2장씩의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여자 싱글에 출전한 이해인(16·세화여고)과 김예림(18·수리고), 남자 싱글의 차준환(20·고려대)이 기여했다.

26일 끝난 여자 싱글에선 이해인이 쇼트프로그램(68.94점)과 프리스케이팅(124.50점) 합계 193.44점으로 10위, 김예림이 쇼트(73.63점)와 프리(118.15점) 합계 191.78점으로 11위에 올랐다. 이들의 순위 합계가 21이어서 베이징올림픽 쿼터 2장을 확보했다. 한 국가에서 2명 이상(최대 3명)이 이번 세계선수권에 출전한 경우 상위 2명의 순위를 합쳐 올림픽 쿼터를 배분한다. 순위 합계가 13 이하일 경우는 3장, 14~28이면 2장이다.

이해인은 "세계선수권에서 10위 안에 들어 기쁘다.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 경쟁할 수 있어 뜻 깊은 추억이 될 것 같다"면서도 "부족함을 확인한 만큼 더 열심히 보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예림은 "무사히 대회를 마쳐 다행"이라며 "마무리가 아쉬웠지만, 또 한번 나를 되돌아보고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준환은 쇼트(91.15점·8위)와 프리(154.84점·13위) 합계 245.99점을 받아 10위에 올랐다. 이로써 차준환은 세계선수권 남자 싱글에 출전한 한국선수의 최고 성적을 경신했다. 종전 최고 성적은 1991년 정성일이 독일 뮌헨 대회에서 기록한 14위다. 차준환은 첫 세계선수권 출전이었던 2019년 일본 사이타마 대회에선 19위에 오른 바 있다.

차준환이 톱10에 진입하면서 한국은 2명의 남자선수가 올림픽 출전권을 얻게 됐다. 한 국가에서 한 명의 선수가 출전했을 경우 준우승까지는 3장, 3~10위이면 2장의 올림픽 쿼터가 주어진다. 차준환은 "오래간만에 열린 대회라 그런지 쇼트 때부터 많이 긴장해 평정심을 찾으려 노력했다"며 "실수가 나와 아쉬움이 남지만, 톱10에 진입해 다행이다. 귀국 후 자가격리를 하며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곧바로 베이징올림픽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자 싱글에선 안나 셰르바코바(233.17점)와 일리자베타 툭타미셰바(220.46점), 알렉산드라 트루소바(217.20점) 등 러시아선수들이 1~3위를 독식했다. 남자 싱글에선 네이선 첸(미국·320.88점)이 쇼트에서 실수로 3위까지 미끄러진 아쉬움을 딛고 우승했고, 가기야마 유마(291.77점)와 하뉴 유즈루(289.18점) 등 일본선수들이 2~3위에 올랐다.

차준환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